

사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세우자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시며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 스승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조국과 민족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겨레의 그리움은 더욱더 강렬해지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을 필생의 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온갖 고와 심혈을 다 바쳐 민족자주통일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영원한 통일의 태양이시다.

자주성을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로, 민족자주의 원칙을 민족문제해결의 핵,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의 대단결로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첫 시기부터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로 보시고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뮤어세우시여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하고 그 단결의 위력으로 통일운동을 전진시켜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절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작품에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시려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맥박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권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식화하시여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조국통일3대현장의 정식화, 그것은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그대로 관철하여 민족자주통일의 혁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하셔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민족대단결5대방침도 제시하시였다.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통일의지로 혁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새기에 금문자로 빛날 6.15공동선언과 우리 겨레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다.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온갖 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뿐릴 것이다.

오늘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또한 한분의 백두산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응호하고 통일을 위한 투쟁에 온 겨레를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계신다.

그 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을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작품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의 혁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실 굳은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한없이 숭고한 인정미와 하늘같은

덕망으로 남녀의 각 당, 각 파, 각 계 인사들, 동포들과 허물없이 만나시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시고 민족문제해결에서 지침으로 되는 고귀한 가르치심과 평화한 해답을 주시던 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은 오늘도 우리 겨레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다.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온갖 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뿐릴 것이다.

오늘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백두산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시었던 선군길을 이어가시며 내외호전 광들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겨레의 가슴마다에 조국통일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조국통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혁사적인 보고에서도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

현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

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현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사적보고에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실현하여 통일된 조국을 겨레에게 안겨주시려는 민족사적사명과 숭고한 도덕의리의 결정체이며 나라의 통일과 강성번영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셨던 선군길을 이어가시며 내외호전 광들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겨레의 가슴마다에 조국통일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조국통

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루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통일방략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겨레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이다.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에 환희의 6.15통일시대를 기어이 다시 안아와야 한다.

만나자 정이 통하고 각계각층의 북남의 겨레가 얼싸안고 통일함성을 드높이던 6.15시대는 오래동안 불신과 대결로 얼룩졌던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함께 통일로 가는 판계로 전환시켰다. 평양과 서울, 백두산과 한나산 등 북과 남을 오가며 진행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은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과 뜰끓는 통일열기를内外에 힘있게 표시하였다. 여러 국제체육경기대회들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이 통일기를 휘날리며 공동 입장하고 백두산과 한나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하나로 합쳐져 부산과 제주도의 경기장봉화대에 통일의 화불로 타오를 때 우리 겨레는 결코 갈라져 살수 없는 한겨레임을 눈물겹게 절감했다.

그런데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력있게 전진하던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남조선에서 친미보수 《정권》의 련이은 집권으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쳤다. 남조선에서 보수 《정권》의 집권 근 10년간 6.15의 성과들은 모두 말살되고 북남관계는 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였다. 우리 겨레를 그토록 기쁨과 감격에 넘치게 했던 6.15시대의 격동과 환희는 과거의 일로 되었다.

현실은 6.15를 지키면 통일이요, 그를 버리면 대결과 분열의 지속, 전쟁위험의 증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파괴된 북남관계를 복구하고 자주통일의 넓은 길로 가자면 그 어떤 새로운 길이 아니라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6.15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에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

남조선에서 거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초불의 힘도 인민이 작성되고 뭉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민족의 힘은 단결에 있으며 통일의 추동력은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에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통일열망을 짓밟고 대결과 전쟁의 재난만을 강요하려고 미친듯이 발악하는 친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절대로 용납치 말고 단호히 매장해버려야 한다. 해외동포들은 민족의 일원이 된 사명감을 안고 지난 세기와 현 세기의 비극인 조선의 분별을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한 정의의 통일위업에 너도나도 참가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

온 겨레가 6.15의 기치를 들고 통일함성을 드높일 때 조국통일의 기판자는 힘차게 내달리게 될 것이다.

겨레가 가는 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험난한 장애들이 가로놓여있지만 조국통일3대현장과 북남공동선언이 빛을 뿐리고 절세위인의 탁월한 애국의령도가 있어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자주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아들이 이 땅에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안아와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원산군민발전소와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조선인민군 15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원산군민발전소를 현지지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먼저 거창하게 솟아오른 원산군민발전소 언제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푸른 물 출렁이며 끌없이 펼쳐진 대인공호수를 바라보시면서 멋있소, 대단하오, 하자고 결심한 사람의 정신을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원산군민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전력과 주민생활용수, 공업 및 관개용수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을뿐아니라 이 지역의 자연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킴으로써 강원도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염원을 빛나게 실현 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언제에 새겨진 자력갱생이라는 대형글발을 가리키시면서 정말 힘이 난다고, 이 발전소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준 발전소,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이 슴배여있는 발

전소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강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을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어 원산군민발전소의 연혁소개실과 원산군민 2호발전소의 발전기실, 조종실 등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전력생산 및 공급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발전소의 설비들에 대한 정상관리, 정상유지를 잘할데 대한 문제, 송전계통의 도중손실을 없애며 운전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설비들을 안전하면서도 능숙하게 다룰데 대한 문제, 통합생산체계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데 대한 문제 등 원산군민발전소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모든 당조직들은 간고한 투쟁으로 고귀한 경험을 창조한 강원도당위원회처럼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만리마속도창조에로 당원들과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빛나는 승리를 앞당겨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식경제 시대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개



건현대화되였으며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조선인민군 15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부대지휘관들과 수산사업소 일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그동안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사업소를 바다가풍치와 어울리게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는 현대적인 수산기지로 전변시키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제 떠칠 있으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5돐이 되는 날이라고,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 장군님을 생각하느라니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 밤 수표하신 수도시민들에게 대한 물고기공급문건이 떠올라 오늘도 그 문건을 몇번이나 보고 또 보았다고, 인민군대에서 잡은 물고기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면 우리 장군님께서 기뻐하실것만 같은 생각에 인민군대 수산기지를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수산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진현대화정형과 물고기잡이실적, 저장 및 공급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종합지령실도 돌아보시면서 이곳 수산사업소에서 어장탐색과 물고기잡이를 비롯한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 과학화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목표를 내세우고 도입한 해양환경정보분석평가체계, 해상지휘체계, 물고

기기공설비조종체계, 전력감시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 문화회관, 과학기술보급실, 정양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모든 생산건물, 생활건물들이 설계도 잘되고 시공의 질도 높다고, 어로공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래년에 이곳 사업소의 종업원들을 위한 살림집까지 멋 들어지게 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300일 출어일수를 보장하고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물고기를 집단적으로도 잡고 분산적으로도 잡으며 먼바다에서도 잡고 가까운바다에서도 잡으며 큰 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는 식으로 월새없이 어로전투를 전개하는데 대한 문제, 고기배와 어구들을 보다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릴데 대한 문제, 어로공들이 물고기잡이에 전심전력하도록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한 문제 등 사업소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15호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다음해에도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당의 수산정책관철에서 선봉에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12월의 희망이 이 땅을 덮고 있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때로부터 지나온 5년세월 산천도 사람들도 모든것이 물라보게 달라졌다.

그러나 변하지도 달라지지도 않은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전체 인민의 그리움과 충정의 마음이다.

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만복의 씨앗들이 알찬 열매가 되어 이 땅을 인민제일주의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꽂펴우는 현실을 보며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민족의 영수로 모시고 살았는가를 폐부로 절감하고있다.

위인의 영생은 결코 그의 전기나 기념비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이룩한 불멸할 업적으로 영생하는것이다.

사람들의 행복이 깃든 아름다운 거리와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서는 창조물들, 천지개벽된 사회주의전야와 백파가 무르익는 파수바다들, 광활한 우주의 궤도를 새기는 조선의 실용위성과 최첨단돌파의 기적들,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으로 다져진 불패의 군력을 보면서 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얼마나 거대한 애국유산을 남기시였는가를 가슴뿌듯이 체험하고있다.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은 세계를 해석하고 그 길을 밝히는 것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시대를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정일령도자는 왜 세계의 존경을 받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 외국의 언론은 그것은 크지 않은 조선을 가장 강대한 군사동맹의 위협과 장기간의 재속에서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런 강한 지도자는 적도 존중할수밖에 없다고 쓴적이 있다.

재부는 늘일수 있어도 한 민족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으며 강대한 나라를 세우는 일은 누구나 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시대에 조선은 세계가 공인하는 강국의 당당

태양은 영원히 누리를 밝힌다

한 존엄과 무진막강한 힘을 지니게 되었으며 제국주의의 힘의 통치를 제압할수 있는 강력한 정의의 국, 동북아시아의 평화번영의 보루로 우뚝 서게 되었다.

우리 민족과 시대를 이끄신 어버이 장군님의 위대한 생애의 밀바탕에는 소리없이 녹아 대지에 스며드는 생명수가 되는 희눈처럼 사시려는 순결한 현신의 세계가 놓여있었다.

인민이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언제나 하늘로 내세우시였다. 인민을 위해 주실수 있는것은 다 안겨주시면서도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동상이나 기념비를 세우는것을 허용하지 않으신 장군님이시였다.

어느해 태양절 황홀한 축포가 터져오른 그날에도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은 다 기뻐만 하는데 난 그 축포를 보면서 인민들을 생각했다고, 고생한 인민을 잘살게 해주지 못하고서야 내가 어떻게 발편잠을 자겠는가고 하시며 눈굽을 적시시였다.

그이께서는 한평생 육체의 극한점을 초월하는 놀라운 정신력으로 밤잠도 잊으시고 더 많은 곳을 찾으시고 더 많은 인민을 만나시며 초강도현지지도 강행군을 이어가시였다.

일찌기 통남산에서 다지신 조선을 세계에 떨치리라는 맹세를 지켜 나라와 민족앞에 강국건설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시고 자신의 한생을 바쳐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치료를 받으셔야 할 몸이시였으나 그 모진 아픔을 참고이기시며 인민을 위해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 또다시 오르시었던 장군님이시였다.

령도자로서,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온갖 고생과 만난 시련을 다 겪으시며 한생을 초불과 같이 깡그리 태워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들을 내놓으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실현에로 전민족을 이끄시였다.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사색과 정력적인 정도에 의하여 두차례의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북남 공동선언들이 채택되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6.15통일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 숭고한 민족애로 분렬의 비극을 끌장내기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하여 민족의 통일열기를 고조시키고 반목과 질시, 대결파 불신이 두터웠던 조국강토에 민족적단합과 화해,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신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업적을 겨레는 잊지 못하고있다.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장군님을 존경하여 남조선 현대그룹 회장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신 국방위원장을 길이길이 마음속에 기억할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유태영재미동포는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이 세계 곳곳에서 약소국가들을 집어삼키려고 발악하는 정세下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튼튼한 유산을 닦아놓으시였다.》고 경모심을 꾀하였다.

조국통일을 최대의 애국이라 하시며 통일된 조국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여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조국통일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은 한평생 오로지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부강번영,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그이의 민족자주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있으며 민족의 앞길에는 보다 창창한 미래가 열리고있다.

나는 우리 장군님을 영원한 승리의 상징으로 받들고 장군님 걸어오신 길을 끝까지 이어갈것이라고 하신 12월의 그 맹세를 지켜 원수님께서는 태양의 혁력을 빛나게 이어가고계신다.

어버이 장군님의 위업과 유훈을 받들어 통일된 강국의 려명을 불러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위대한 태양의 모습을 뵈옵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강국건설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장엄한 시대와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의 마음속에 길이 영생하신다.

본사기자 리경월



위대한 장군님은 오늘도 환하게 웃으십니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쳐오는 12월입니다. 하늘처럼 우러르며 살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접하고 온 나라가 슬픔에 몸부림치던 때가 어제같은데 벌써 5년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우리 조국에서는 세상을 놀래우는 전변들이 수많이 일어났고 인민의 행복의 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섰습니다.

바로 그 하나하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염원하신 것이여서 보여드리고 싶고 아뢰이고 싶어 온 나라 인민이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물결쳐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마다 경이적인 사변이 창조되고 있는 오늘의 눈부신 현실을 보시며 너무 기뻐 환하게 웃으시는 것만 같아 격정을 누를 수 없습니다.

강철같은 형장의 불날같은 그 미소라는 노래의 구절과 더불어 우리 장군님 생각이 간절해질수록 위대한 태양의 영상을 선군조선의 영원한 상징으로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거룩한 충정의 세계가 뜨겁게 어려와 격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 * *

바다가 말랐다고 하면 믿겠습니다 태양이 꺼졌다고 해도 믿겠습니다 허나 우리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 하늘이 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의 결을 떠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믿지 못하겠습니다

...

못 잊을 12월, 하늘이 무너져내린 것만 같은 비통한 소식에 접하고 평양하늘을 우러르며 한 해외동포가 터쳤다는 시의 한구절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서거하시였다는 비보에 산천초목도 흐느껴울고 억장이 무너져내리는 비애의 바다에서 목매여 태양의 품을 찾고 또 찾던 5년전 그 나날을 세월이 흐른들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인민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며 위대한 태양의 영상이 빛발쳤습니다.

피눈물속에 화환을 엮으면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지 못한 것이 그리도 절통하여 오열을 터치던 인민들의 언가슴을 녹여주며 조의식장들에 절세위인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아 하고 부르는 어버이의 정이 뜨겁게 비껴흐르는 절세위인의 태양상을 처음 봤을 때의 우리 인민의 심정이 파연 어여하였겠습니까.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 미소와 더불어 행복과 영광의 절정에서 깊은 삶을 빛내여온 우리 인민이었습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30~40여년 간의 유풍고초를 이겨내며 신념과 의지의 강자, 조선로동당원의 기개를 힘있게 펼칠수 있은 것도 그 거룩한 태양의 모습을 언제나 짐작깊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괴를 말리우고 살을 저미고 뼈를 깎는 악형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해빛같은 미소를 그려보면 무서운것이 없었고 힘이 부쩍부쩍 솟구쳐올랐습니다.

미제와 그 주구인 남조선피리들이 아무리 『북봉파설』을 떠들며 별의 별 지랄발광을 다해도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을 생각하면 우리 조국은 끄떡없고 조국통일도 문제없다는 신심이 백배해지군 하였습니다.

전진하는 조국에 백승의 나래를 달

아주고 전설같은 기적을 낳게 한 인자하신 미소가 빛을 뿌리는 불멸의 태양상은 피눈물의 언덕에서 우리 인민을 다시 일으켜세운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어버이장군님의 태양상이 형상된 것은 그이께서 서거하시기 전이였습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나는 장군님의 태양상을 창작완성하기 위하여 마음을 많이 썼다고, 그전에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태양상을 자신께서 사진을 선정해주어 형상완성하도록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 태양상을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 완성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하시였다고, 그래서 나는 장군님께서 생존해계실 때 장군님의 태양상을 창작하기로 결심하고 이 사업을 직접 조직지도하였다며 감회깊이 회고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0돐을 계기로 장군님의 태양상초상화를 모시도록 하시려 한달동안 수많은 영상사진들을 보고 또 보시며 품을 들여 고르신 사진을 창작가들에게 보내주시였으며 세부형상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신 우리 원수님이시였습니다.

그렇듯 고결한 충정이 깃든 태양상을 피눈물의 언덕에서 우리 인민이 뵈옵게 되였으니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인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조의식장에서, 위대한 장군님과 연결하던 100여리 연도에서 절세위인의 태양상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태양의 모습으로 천세만세 받들어모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충정의 세계를 온넋으로 절감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듬해 1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특별보도에서 전국각지에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설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하시여 우리 인민모두가 그 어디서나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의 영상을 빙오며 태양의 축복속에 살게 하여주시였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미소를 늘 가슴깊이 안고 살려는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헤아리시여 장군님의 초상화를 태양상으로 바꾸어 모시자고, 그러면 만복이 넘쳐나고 나라가 홍해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고 합니다.

정녕 절세위인의 태양상이 빛나는 우리 조국에서 지난 5년간 얼마나 놀라운 전변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11월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 군인 삼지연군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에 정중히 모신 장군님의 동상을 보고 또 보시며 눈이 내리는구만, 장군님과 눈물속에 영결하던 날에도 눈이 내렸지,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의 살붙이처럼 사랑하시던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조국의 일심의 단결력은 백배로 강해지고 군력은 최대로 다져져 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으로 치솟아올랐습니다. 경제는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활력있게 전진하고 인민의 행복이 날로 꽂펴나는 속에 사회주의문명강국은 자랑찬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안의 그시절 통일의 길에 나서며 천리마를 타고 달리는 조국의 벅찬 숨결을 호흡하던 제가 오늘은 만리마를 타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날마다 눈부신 전변의 새 혁력을 수놓아가는 눈부신 현실을 가슴 들썩이며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멋쟁이 창조물, 현대화된 표준공장, 본보기 거리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문수물놀이장,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평양자라공장, 평양메기공장, 평양국제비행장, 고산파수종합농장, 신창양어장,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종합봉사선 『무지개』호,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미처 그 수를 다 꼽을수 없습니다. 너무 희한하고 황홀하여 눈이 부시고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백두산대국의 위용이 나래치는 그 격동적인 화폭들에 하늘도 머리숙일 우리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이 깃들어 있어 더더욱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줍니다.

새겨보면 이 땅에서 다계단으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전변과 기적의 창조물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선군령도, 따스한 애민의 손길과 떼여놓고 어찌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고산땅이 꺼지도록 탑스럽게 열린 사파바다를 보면 전선지대의 무릉도원을 펼쳐주시려 험한 철령을 넘고 넘으시던 장군님의 영상이 어려오고 문명의 새 거리들을 거닐어도, 상점마다 가득찬 우리의 명제품들을 바라보아도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며나면 현지지도길을 걸고 또 걸으시던 장군님의 로고가 안겨와 눈시울 젖게 합니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통라인 민유원지, 류경원에 가보아도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체취가 뜨겁게 어려있어 쉬이 발길을 멎수 없습니다.

인민의 꿈을 현실로 꽂피우시기 위해 한몸을 초불처럼 강그리 불태워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없이 고결한 충정으로 풍성한 열매로 주렁지게 하여주시였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수물놀이장 건설장을 찾으시여서는

는 문수물놀이장이 완공되면 우리 인민들에게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꾸려주시려고 마음쓰신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관찰하는 것으로 된다고, 장군님께서 계실 때 건설하여 보여드리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신 원수님이시였습니다.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장을 돌아보시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위대한 장군님을 추억하시며 이곳으로 오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얼마나 중시하시였으면 그처럼 불편하신 몸으로 외국방문을 마치시는 길로 천사만사가 기다리는 국사를 뒤로 미루시고 말전소건설장부터 먼저 찾아오시였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였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현대화된 천지윤활유공장을 찾으신 우리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에 의하여 탄생한 공장, 장군님께서 단신으로 겪으신 고생과 맞바꾸어 후대들에게 물려진 이 공장에 와보니 이처럼 현대화된 풍랑한 공장을 장군님께 한번도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가슴을 허빈다고, 천지윤활유공장은 유복자공장이라고 말씀하실 때 온 나라 인민들은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격정을 터쳤습니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첨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현신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였고 원수님의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는 장군님의 유훈을 찬란한 현실로 꽂펴우는 길이였습니다.

당보와 TV를 통해 매일 접하는 것 이지만 원수님께서는 장군님 체취가 스며있고 장군님 손길이 어려있는 곳이라면 빠짐없이 다 찾아가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꽂피우기 위한 귀중한 가르침도 주시고 장군님의 유훈이 관찰되였다는 소식을 들으실 때면 너무도 기쁘시여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찾아뵙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에 발들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뀐 우리 조국입니다.

그래서 이땅에 수풀처럼 솟아오른 기념비적 창조물들이며 만사람을 경탄시킨 놀라운 전변들을 한가슴에 안아볼수록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고 장군님의 유훈을 현실로 꽂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충정의 세계에 감동을 금치 못하는 우리 인민입니다.

2016년 이 한해의 경이적인 사변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열어제낀 특대 사변이 일어났던 그날 저는 장군님 생각에 온밤잠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10여년 전 선군조선의 퇴성같은 해 무기보유선언이 전파를 타고 온 행성에 울려퍼지던 그때 우리 나라가 1905년에는 망국 『조약』을 강요당했지만 100년이 지난 2005년에는 세계 최강국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고 있는 대하여 용당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며 핵강국건설의 만년도 대를 더욱 억척같이 다져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습니다.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원수님께서 수소탄폭음으로 선군조선의 불폐의 위용을 힘있게 펼쳐주시였으니 부국강병의 이 대경사를 장군님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습니까.

그 거룩한 충정에 받들려 그로부터 며칠후에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가 우주를 박차고 또 다시 솟구쳐오르는 특대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주의강국의 대문을 힘차게 두드리며 인공지구위성들이 날아오르는 벅찬 현실을 두고 우리의 위성은 하늘을 날고 우리의 철갑상어는 바다로 간다고 그리고 기뻐하시던 장군님이시였습니다. 그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으시고 장군님께서 찾고찾으시던 위성발사장을 한낮에도 가시고 한밤에도 찾으시고 운반로케트의 하얀 동체를 보배를 쓰다듬듯 오래도록 어루쓰이며 장군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우리 원수님의 충정을 떠나 세계를 충격과 경탄에 휩싸이게 한 민족사의 특대 사변을 생각할수 없습니다.

황금해의 새 혁사와 포구마다에 펼쳐진 희한한 『이채어경』도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인민들에 대한 물고기공급문건에 남기신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새기시고 우리 원수님 안아오신 인민의 기쁨이며 신발풍년이 든 원산구두공장의 흐뭇한 광경도 외국방문의 나날 백화점의 신발매대에서 눈길을 멎수 없었다고 하신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주신 풍성한 열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가신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그 고결한 충정, 인민사랑에 받들려 조국의 북변천리에서 전화위복의 기적도 창조되였습니다. 둘이켜보면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다는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에 의해 얼마나 많은 로동당시대의 새 전설들이 꽂펴나 세계를 감동케 하였습니까.

조개잡이 나갔다가 파도에 밀리여 떠내려간 이름없는 한 처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날리도록 하시고 수해를 당한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구원하기 위해 인민군비행대와 함정들까지 출동시켜주시던 우리 장군님이시였습니다.

그 하늘같은 사랑에 떠받들려 남쪽에서 숨쉬는 화석으로 스러져가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승자가 되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는 전설 같은 기적도 일어나 얼마나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우리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그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안으시고 재난을 당했던 조국의 북변천리를 사회주의선경거리, 로동당시대의 선경마을로 전변시켜주시었으니 피해주민들 누구나 김정은원수님은 곧 김정일장군님이시라고 진정을 터치고있습니다.

세상에는 부국강병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가꾸어온 일화들이 무수히 전해지고 있지만 이렇듯 선대수령의 뜻을 강국건설의 초석으로 하고 세기적인 창조물을 충정의 기념비로 빛내여온 가슴뜨거운 이야기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참으로 지나온 5년은 어버이장군님께서 불면불휴의 애민현신으로 마련하여주신 강성번영의 귀중한 씨앗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계에 감동을 금치 못하는 우리 인민입니다.

세상에는 부국강병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가꾸어온 일화들이 무수히 전해지고 있지만 이렇듯 선대수령의 뜻을 강국건설의 초석으로 하고 세기적인 창조물을 충정의 기념비로 빛내여온 가슴뜨거운 이야기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이 활짝 꽂펴날 때마다 너무도 기쁘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가슴을 울려줍니다.

장군님 웃으시는 영상이 눈에 선합니다.

선군시대에 련이어 태여나는 풍랑한 창조물을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환하게 지으시는 웃음을 그대로 우리 장군님의 기쁨이고 웃음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온 나라 방방곡곡을 어버이장군님의 해빛같은 미소로 꽉 채워주시였습니다.

하기에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에 의해 마련된 소중한 열매들을 마음속에 안고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끝없이 물결쳐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고 심장으로 아뢰이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판

는 길이였고 원수님의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는 장군님의 유훈을 찬란한 현실로 꽂펴우는 길이였습니다.

당보와 TV를 통해 매일 접하는 것 이지만 원수님께서는 장군님 체취가 스며있고 장

위대한령도, 기적과 사변의 5년

우리 겨레가 민족의 어버이를 잊은 상실의 크나큰 아픔을 당한 때로부터 5년이 흘렀다.

지난 5년은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태양의 영성이 온 나라에 더욱 밝은 빛을 뿌리고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이 한치의 편차도 없이 곧바로, 출기차게 계승되어온 격동의 나날이였다. 장군님의 유훈이 모두의 가슴에 높뛰고 그이의 현명한 가르침이 부강조국건설의 알찬 열매들로 주렁쳐 행복의 무릉도원이 마련되어가고 인민의 기쁨과 웃음이 나날이 커져온 위대한 기적창조와 전변의 5년이었다.

5년은 반만년 민족의 역사에서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5년에 조선은 천지개벽의 새 역사를 창조하여왔다.

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동방의 핵강국으로 되고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도 놀라운 사변들이 일어났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큰물폐해를 입은 최북단 라선땅의 피해지역들이 불과 30여일동안에 선경으로 변모되고 올해에 지난해보다 더한 자연의 대재난을 당한 함북도 북부폐해지역이 두달남짓한 기간에 완전복구되어 사회

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진 것도 남들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전화위복의 기적이다. 다계만으로 핵억제력강화의 퇴성이 울린것도 사변적인 성공이 고 은파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들을 련이어 일떠세운것도 만 사람을 놀래운 기적이다. 새롭게 건설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병원촌으로 변모된 문수지구, 과학기술전당이 건설되어 과학의 섬으로 천도개벽한 대동강의 속섬 등 이 땅에 펼쳐진 현실은 참으로 경이적이다.

국가방위력이 백방으로 다져지고 창조와 건설의 대변영 기속에 수많은 주택지구들과 산업시설들, 교육, 문화, 보건, 체육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인민들이 날이 유족하고 문명한 복리를 향유하는 오늘의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출중하고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시대성과 계승성, 진취성과 원칙성, 로숙성과 령활성을 지니신 타월한 정치가,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5년세월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고 인민의

리상과 꿈을 실현하는 애국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드림없는 선군의지,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신심과 랙관을 지니신 그이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 전략, 전민과학기술인재화와 자강력제일주의를 비롯한 가장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들을 제시하시여 제국주의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산산이 짓부시고 나라의 존엄과 지위, 국력강화에서 국적인 전환을 가져오시였다.

강국건설을 이끄시는 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비약한다는 비상한 애국의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정력적인 령도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조국수호와 부강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방방곡곡을 종횡무진 하시며 이어가신 그이의 현지지도의 자욱은 서해전역 최남단 섬초소로부터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나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찬눈비를 맞으시며 걸으시고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어가신 그이

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와 불철주야의 헌신의 로고와 심혈에 의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게 눈부시게 변화발전하는 놀라운 현실들이 련이어 펼쳐져였다. 원홍의 청춘과원과 고산평의 철령아래 사파바다가 떨쳐지고 동해포구마다에 넘쳐나는 물고기대풍이 『바다 만풍가』의 노래로 이어지는 황금해의 새 령사가 창조되었다. 10월 8일공장, 평양시비섯공장, 갈마식료공장, 원산구두공장, 평양강생이 가공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등 산업시설들이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로 끽끗에 키돋움하듯 일떠서 생산적 양양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자력의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자체로 개발한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현실이 펼쳐졌다.

문명국건설에서 전환이 일어나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이 실시되고 중앙과 지방의 대학들이 부문별, 지역별 종합대학으로 발전하여 학술중심, 정보중심, 자료봉사중심, 원격교육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 체육열풍이 휩쓸어 온 나라가 명절같이 들썩이고 국제체육무대

에서는 나라의 존엄과 기상을 파시하며 람홍색공화국기가 련이어 창공에 휘날렸다. 국제축구련맹이 인터네트홈페이지에서 『2016년은 조선축구의 해』라고 평한바와 같이 조선녀자축구선수들이 국제축구련맹 2016년 17살미만, 20살미만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한다하는 강팀들을 다 누르고 각각 1등을 쟁취하여 세계에 총격을 준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체육강국건설구상과 비범한 령도가 낳은 새로운 체육신화, 체육기적인 것이다.

위험천만한 군사적위협공갈과 전대미문의 초강도재와 같은 악랄하고 집요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는 적대세력의 도전속에서도 나라의 운명과 평화가 굳건히 담보되고 경제강국, 문명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눈부신 비약과 기적이 다채단으로, 다발적으로 이룩되게 된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출중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 것이다.

얼마전에 있은 인민군대의 한 특수작전대 전투원들의 훈련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위대한 령장의 통솔하에 있는 인민군대의 힘을 당할수 없으

며 공화국의 군력은 무진막강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실전능력을 판정하고 남조선작전지대안의 특정대상물들에 대한 타격방법의 현실성을 확정하는데 목적을 둔 그날의 훈련에서 전투원들은 일단 명령만 내리면 단숨에 달려나가 민족반역세력을 쓸어버릴 멀적의 기상과 의지를 파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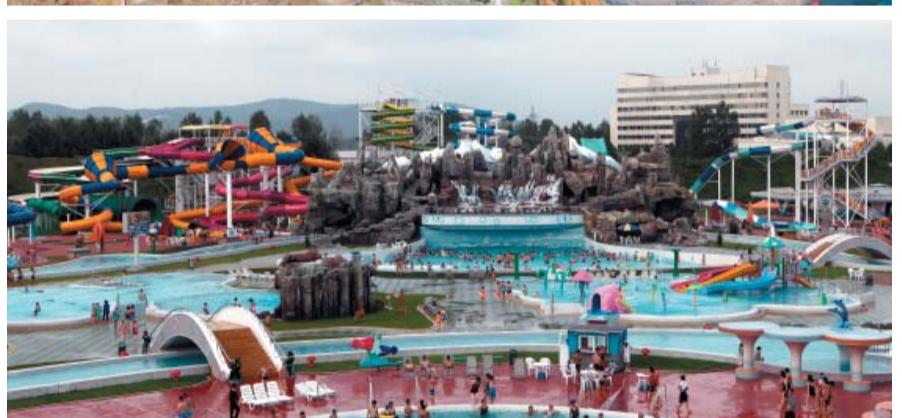
참으로 나라와 인민의 운명과 존엄을 지키고 부강조국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약동하는 깊음으로 날마다 비약하는 조선의 힘이며 기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조국과 민족의 밝은 전도를 그리시며 굳게 확신하시였다.

김정은동지가 계시여 우리혁명,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고.

위대한 장군님의 천리혜안의 뜻깊은 교시의 자자구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성스러운 혁명실록 5년사의 갈피갈피에서 빛발치고있으며 돌아보는 다섯해는 끝없이 무궁번영할 공화국의 천만년 밝은 미래를 그려보게 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리 설



장
시

총정의 세월 속에 영생하시리

—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

12월이 그리움인가
그리움이 12월인가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장군님 모습뿐인 이 산천에
그리움의 노래가 흐른다

어느덧 세월은 이렇게 흘러왔느냐
비애를 삼키던 그날로부터 5년세월
모진 추위에 눈물도 강산도
시간마저도 열어붙어
다시는 날과 달 흐를것 같지 않더니만

찢어지는 가슴에 아프게 맷히던
슬픔의 응어리를 따스히 녹여주며
이 땅에 봄날같은 사랑이 흐른 5년
행복이 무르익는 만복의 화원이
인민의 노래되고 기쁨이 되여 흐른 5년

세월이여, 너 지구의 자전으로
해와 해의 년륜 감아 흐른다 하라
하지만 이 땅에 흘러온 5년은
자연의 순리로 흐르지 않았어라
그리움이 없었다면 5년이 무어냐
단 하루도 흐르지 못했으려니

세월이야 암석도 녹이고
바다도 다 말리울수 있으련만
장군님 자신을 바쳐
심장에 싸안아 빛내이신 땅
인민의 가슴에 꽉 차넘치는 그리움
이야
천추만대 흐른들 덜어낼수 있으랴
그이와 함께 살아온 5년이였다고
그이 더운 숨결 심장의 박동
들 체온처럼 생활의 음향처럼
느끼며

살아온다고 터치는 그 격정
묻노니, 인민이여 어디서 솟구친것
이던가

—장군님의 영생의 숨결을 들으며
라는
이 말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 말만 외워도 눈물이 납니다

아, 장군님 생각으로
불태우는 열혈의 심장이 터치신
뜨거운 말씀
원수님의 불같은 충정이
인민에게 주었으라 영원한 그리움
떠받드신것이여라 장군님 영생의
세월을

력사는 전해오고있더라
선대수령을 받든 고결한 의리
선대위엄을 이어간 계승의 자취를
허나 그 갈피갈피 다 번져보아도
없노라 원수님 가슴에 타婆는
그린 불같은 충정의 세계는

내 감히 그이의
가장 뜨겁고 가장 숭고한
충정의 세계에 조용히 들어서나니
그리면 보여오누나
태양처럼 웃으시는 장군님
그 태양이 한생 하늘로 받든 인민이

오로지 장군님을 위하여
장군님 사랑하신 인민을 위하여
온넋을 다해 해와 해를 불태우시고
정파 열 다해 날과 달 이끌어오신
원수님 충정의 5년세월이여

그 세월의 뜻 잊을 만단사연
어이 여기에 다 적어 전할수 있으

랴만
부디 높뛰는 시정
수소란의 장쾌한 폭음을 터쳤던
이해의 첫기슭에 삼가 얹어보나니

수소란시험의 최종명령서에
친필을 남기셔야 할 혁사적순간
원수님 심중에 무엇이 끊어번졌던지
말씀 없으셨어도 터놓지 않으셨어도
그이의 마음 어찌 인민이 모르랴

장군님 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부국강병의 이 대경사를 두고
한평생의 념원 이룬 감격 크시여
선뜻 펜을 드시였을 장군님
아, 이 펜을 장군님께 드릴순 없는가

펜은 가벼웠어도
그리움으로 사무치는 장군님 생각
으로
천근만근으로 무거웠던 펜
한자한자 장군님과 함께 쓰시듯
원수님 써나가신 뜻깊은 친필

당중앙은 수소란시험을 승인한다.
2016년 1월 6일 단행할것!

김 정 은
2016. 1. 3

드디여 세계를 거세게 뒤흔드는
조선의 장엄한 새해의 서포인듯
지심을 깨치며 울린 수소란폭음
—장군님, 들으십니까!
그 폭음은 한없이 거룩한 충정이
터친

그리움의 활화산!

그 활화산이 솟구쳐 하늘에 닿아
눈부시게 뻗어간 불줄기
『광명성—4』호 위성이 날아오른
서해의 위성발사장
그곳으로 가는 길에 마음 세우면
원수님 다녀가신 자욱이 눈물에 겨워

나라의 존엄 민족의 국력
세상천하에 떨친 사연깊은 길
이 나라 곳곳에 뻗어간 수천길래
그런 길들과 다름없는 수수한 이
길을

원수님 반만년 강국의 꿈안고 가셨

구나

바람결에 흐느적이는 나무잎새
길가의 자그마한 조약돌조차에도
장군님 사색의 눈빛 비껴간것 같아
무심하지 않은 길

장군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라고
굳이 믿고싶으셨던 원수님 마음

이른새벽에도 한낮에도 가시여
보아주신 『광명성—4』호의 장한
모습

저녁에도 한밤에도 또 가시여
쓸어보고 또 쓸어보신 그 위성은
우리 원수님 그리움의 응결체!

뜻깊은 광명성이 솟아오른 2월
그 이름으로 빛나는 위성
보란듯이 저 우주에 쏘아올리시였

으니

그 충정에 떠받들려 2월이 왔다
장군님 웃으시는 2월의 봄이 왔다

오, 영생이란 무엇
그것은 장군님 바라신 평생의 념원

이 풀려
장군님 기뻐하시는 세월

장군님 한생 부어주신 사랑의 대하
줄기차게 이 땅에 흘러넘치여
사랑의 찬가로 아름다운 세월

아이들을 제일 사랑하신 어버이
새로 일떠선 육아원 애육원에 가

보라
어버이의 자리는 비여있지 않아라
원아들과 함께 계시는 장군님
지으시는 미소는 봄날같이 따스하고

장군님 인민에게 안겨주고싶어하신
사철 푸른물 출렁이는 문수물놀이장
파도소리 좋으시여

인민의 웃음소리 마냥 즐거우시여
장군님 금모래 백사장에 서게시나니

장군님 덜지 못하셨던 심혈의 무게
하나하나 혼신을 다 바쳐 덜어
이 땅에 행복의 무게로 얹혀주시고
장군님 뜻으로 장군님 리상으로

이 땅을 가꾸어가신 원수님

얼마나 많이도 변모되었는가
얼마나 우리의 생활은 아름다워졌

는가
과학기술전당과 종양동물원
자연박물관과 류경안파종합병원
바다엔 희한한 물고기대풍
드넓은 파원엔 흐뭇한 사파대풍

보시였으면 진정 보시였으면
온 강산이 밝아지도록 미소지으실
어버이장군님

그 아쉬움 가슴에 마쳐와
오히려 행복앞에서
웃음보다 눈물이 앞서던 인민

허나 인민들이여
좋은 일 기쁜 일 생기면
장군님께 먼저 아뢰이고싶은 간절함
그 간절함을 다 합친대도

어이 원수님 간절하신 마음에야 비

기랴

—나라의 재부가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언제나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
한 아쉬움이

지워지지 않는 명울로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민족의 국력이 하늘에 닿고
행복의 웃음소리 나날이 커갈 때

그지없이 기쁘시여 지으신 원수님
미소

아, 그 미소엔

만시름 잊으신 희열만이 있는 줄 알
았더니

아니였구나
장군님이 그리워 장군님이 사무쳐와
남모르게 가슴속에 명을 품고계신 줄

기쁨이 백, 천으로 늘어갈수록
그 명울도 백, 천으로 아프게 새기신

줄을

오죽하시였으면 우리 원수님

장군님 탄생하신 영광의 땅

삼지연의 눈을 오래도록 맞으시며

그 명울진 가슴속격정을 터치셨으라

—눈이 내리는구만

장군님과 눈물속에 영결하던 날

에도

눈이 내렸지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의 살풀이

처럼

사랑하시던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보시
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렁진 붉은 사파를 보시여도
물고기 쏟아지는 하류장에 가시여도
세찬 동음 울리는 공장의 일터
인민사랑의 터전을 돌아보시여도
그이는 오직 장군님 생각

하는 일 모든것 하나하나
장군님 마음에 드시겠는가
장군님 뜻에 맞는것인가
아뢰이시며 의논하시며
늘 장군님 마음속에 모시고
장군님과 함께 계신 원수님

무심히 보지 마시라
하늘을 찌르며 치솟은 희한한 거리
그것은 원수님 장군님 영생에 드
리는
충정의 탑!

이 땅에 넘치는 만복의 웃음소리
그것은 원수님 장군님께 드리신
다함없는 충정의 송가!

그 뜨거운 충정의 세계가
저 북부전역에 펼친 전화위복의 승리
말로는 전 할수 없어
눈물로 전해가는 위대한 사랑의 서
사시

터치자니 목이 메고 눈앞이 흐리
누나

두려운 며 장구름이 북변전역에
무서운 절망 부스러뜨려 뿌려대고
이제껏 보지 못한 대재앙
폭우와 물사태가 몰아온 살풍경
전란이면 이보다 더했으랴

그곳엔 사랑하는 인민이 있다
나의 살풀이 아들딸들이
원수님 가슴에 치미던 아픔
아, 그 인민이 어떤 인민인가
장군님 한생 토록 열파 정을 다해
아끼고 위해주신 그런 인민 아닌가

페허가 된 거리와 마을
찬비 맞으며 한지에 나았은 인민
의 모습
장군님 보신다면…

그것이 가슴에 마쳐와
그것이 가슴에 저리시여
밤을 잊으신 그이

—모든 힘을 힘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의 승리를 위하여!

그이는 선언하셨다 전쟁을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의 결사전을
인류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랑의 전쟁 그 붉은 화살표가
퍼즐처럼 뻗어간 북부전역이여

재난을 들씌우는 전쟁은 있었어도
재난을 가시는 사랑의 전쟁은 없
었다

총포성이 울리는 싸움은 있었어도
건설의 동음울린 싸움은 없었다

그 북변천리에
세상에 없는 격전이 벌어져
세상에 없는 별천지 펼쳐지던 날
만세의 환호 목메여 터치여
북변사람들 우러른 평양의 하늘

그 하늘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태양의 눈부신 해살이
사랑으로 대지를 소중히 쓰다듬고
불행의 그늘없는 새 집들의 창가에
살풋이 와닿아 보석채광 뿌려주었
노니

장군님 한평생 품으신 인민
슬하의 천만자식으로 껴안으시고
장군님 모시듯 인민을 받드는 원수님
오, 그이의 정에서
장군님의 다심한 정을 느끼는 인민

구태여 그 무슨 칭송의 말을
가슴에 차오르는 격정의 고마움을
다 담을 말을 우리 찾으라
장군님과 꼭 같은 원수님
장군님처럼 그이는 자애로운 아버지

한치의 간격없이 인민과 어울리시는
따뜻하신 원수님의 품
그이 숨결에서 듣노라
장군님 영생의 숨결을
그이 미소도 달리 말할수 없는 장군님
미소

한평생 인민밖에 모르시여
인민위한 한생을 사신
어버이장군님처럼
그이의 인생 철학도 인민을 위하여!
그이 락중의 제일 큰 락도 인민의
행복!

장군님의 손길이 한생 토록
가꾸고 빛내이신 이 땅
온넋을 다해 펼쳐가시는 원수님
그이 계셔 장군님의 뜻으로
장군님의 사랑으로 세월은 즐기차게

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자자구구 하신 원수님 말씀
그 말씀은 그대로 장군님의 뜻
원수님 펼쳐주신 광활한 미래는
장군님의 신념이 가리키는 승리의
언덕

이 나라의 5년세월은 이렇게 흘렀어라
장군님 그리움에 끓는 천만가슴에
장군님 사랑 장군님의 정 부어주
시며
인민을 품어안고 이끌어오신
원수님의 충정에 떠받들려

원수님 계시여 장군님 영생은
신화나 전설이 아닌
우리의 벅찬 생활의 해와 달
장군님 영생은 추억이 아닌
우리의 오늘이며 무궁한 래일

오, 인민은 말한다
5년세월은 위대한 력사가
위대한 은인에 의해 빛을 뿌린 5년
이라고
장군님 영생의 5년
원수님 충정의 5년이라고

그 충정의 세월속에
인민은 세세년년 맞고맞이 하리라
광명성절 영원한 2월을
우리 겨레 민족의 속망
통일강국의 새 아침을 맞이 하리라
리라
천년이 흘러도 만년이 흘러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중앙미술전시회 개막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서거 5돐에 즈음한 중앙미술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전시회장 중심에는 백두산정에 오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상을 형상한 미술작품이 모셔져 있다.

전시회장에는 공화국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생애와 위인적 풍모를 담은 영상작품들이 모셔져 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도밑에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이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는 공화국의 자랑찬 모습을 형상한 수십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통남산마루에 오르시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혁사의 맹세를 다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승업한 한시도 멀어져 살수 없는 민족의 어버이와 폐눈물속에 영결한 조국의 길우에 또다시 12월의 눈이 내린다. 끝없이 쏟아지는 함박눈속에 걸으니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날 장군님께서 하신 교시가 가슴을 저민다.

함박눈이 평평 쏟아지니 생각이 깊어진다고, 해야 할 일은 많으니 한해가 빨리도 저물어간다고 숙연히 말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을 어찌 잊으랴.

온 나라일을 돌보시는 어버이장군님께 있어서 한해는 너무도 짧은 날이었다. 1년 열두달을 주름잡으며 현지지도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던 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는 그 길에서 쏟아지는 찬비도 맞으시고 맵짠 바람이 눈갈기를 날리는 생눈길도 무수히 헤쳐가시였다.

추위가 닥쳐오면 소리 없이 내리고 내려 대지를 포근히 감싸안아주는 흰눈처럼, 따뜻한 봄 속에 떠나가시던 그날의 날이 오면 고스란히 녹

단상



파도 헤쳐야 하는 시련의 길을 언제나 앞장에서 헤쳐오시였다. 인민에게 행복의 만리를 펼쳐주시려고 고난의 행군도 맨앞장에서 헤쳐가신 장군님이시다. 아이들을 애영소로 떠나보내시고 자신께서는 멀고 위험한 전선길에 오르시군 하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날에도 그이께서는 길에는 눈이 내리고 뿐만 눈갈기가 날리였다.

고생은 자신께서 다 말아안으시고 인민들에게는 영원히 따뜻한 봄빛 만을 주시려는 듯 눈보라 속에 떠나가시던 그날의

날이 오면 고스란히 녹 장군님의 모습.

본사기자 김준경

조선우표들을 집중전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14일 조선우표전시장과 조선우표박물관에 조선우표들을 집중전시하였다.

『그리움의 5년』, 『위대한 한생』이라는 제목으로 집중전시된 수백종의 우표들은 한평생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드시고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결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애국애민의 헌신과 로고를 감회깊게 들이켜보게 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을 로속하고 세련된 당으로, 민족자주 위업수행의 향도적조직으

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을 정치사상강국,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실록이 우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기념』,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 등에 반영되어 있다.

우표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파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 『황금해의 새력사』, 『지구판축위성 〈광명성-4〉 호 성과적으로 발사』,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하여 수령영생위업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고 위대한

본사기자



영상이 아크릴화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 빛나고 있다.

아크릴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선포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조선화 『삼지연의 새벽길』 등의 작품들은 조선로동당을 참다운 수령의 당,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있다.

한평생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천만군민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백두산천출명장의 강인담대한 기상이 아크릴화 『선군정치를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줘시고』, 선전화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의 보검!』 등의 작품들에 빛발치고 있다.

조선화 『궂은 비 맞으시며』, 『전선길에 울리는 종소리』, 유화 『대계도의 새력사』를 비롯한 작품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혁명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생결단의 초

장강행군길을 헤쳐가신 어버이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눈물겹게 전하고 있다.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민족의 어버이를 너무도 뜻밖에 잃은 상실의 아픔을 안고 공화국의 천만군민이 위대한 장군님을 목놓아부르던 12월의 나날을 눈물속에 둘이켜보게 하는 유화 『그리움은 끝이 없네』, 『미곡땅의 12월』 등의 화폭들도 전시되어 있다.

유화 『대동강반의 새풍경』, 조선화 『고산과 수종합농장』을 비롯한 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아래 나날이 꽂펴나는 사회주의선경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주고 있다.

개막식이 14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진행되었다.

사랑의 미소

온 나라 그 어디에나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넘쳐나는 이 아침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생애의 마지막 날 광복지구상업중심을 찾으시었던 그이의 태양의 모습을 잊을수 없다.

그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매대에 상품들을 가득 채워놓은것을 보니 추

운 날이지만 마음이 후더워진다고, 자신께서는 인민을 위해 그 무엇인가를 해놓았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인민의 행복과 기쁨 속에 자신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하시며 온 세상이 밝아지도록 환하게 웃으시였다.

겹쳐드는 파로로 서계시 기초차 힘드신 몸이였지만 갖가지 상품을 사들고 기

는 눈부신 기적속에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인민들을 기쁨속에 바라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어버이장군님.

고금동서에 인민을 위한다는 위인은 많았지만 우리 장군님처럼 위대한 심장의 마지막고동까지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깡그리 바쳐오신 인민의 어버이는 없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펼쳐지

광복지구상업중심
부원 리정심

신념의 노래 높이 부르며

앞당겨오시기 위해 끝없는 애국헌신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토의 정을 담은 노래 『내 마음 따르는 길』이다.

낮설은 타향에서 어렵고 힘에 부칠 때마다 우리는 심장으로 이 노래를 부르며 장군님한분만을 끌까지 믿고 따를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었고 힘과 용기를 백배하군 하였다.

태양이 영원하듯이 태양의 노래, 신념의 노래도 영원하다.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 이신 또 한분의 천출위인

어느해인가 북남통일행사에서 남측대표들속에 끼여있던 불순분자들이 통일행사를 파탄시키려고 비렬하게 책동할 때에도 우리 재중동포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뇌들의 음모를 파탄시켰었다.

태양이 영원하듯이 태양의 노래, 신념의 노래도 영원하다.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 이신 또 한분의 천출위인

재중동포 흥남수

